



수사 진행상황 통지 제도 개선



보호자에게
알려질까봐 두려워
경찰 신고를
망설이고 있나요?

디포유스와 함께 바뀐 제도를 알아봐요



한국여성인권진흥원

무엇이 바뀌었을까요?

기존에는 미성년자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
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했습니다.



하지만 지금은 미성년자 피해 사건도 다음의 경우
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1

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
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2

피해자의 진술 거부 등으로
수사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

이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대신 피해자 지원기관이나
변호사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왜 바뀌었을까요?



미성년자 피해 사건을
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
알려야 하는 제도로 인해



부모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
신고나 진술을 망설이는 경우가
많이 있었습니다.



그래서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
피해 사실을 알리고,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
제도가 바뀌었습니다.

부모님께 알려질까봐
경찰 신고를 망설였다면,
달라진 제도를 확인하고
도움을 요청해 보세요.

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**디포유스**로 연락주세요!

